

# 대학생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을 적용하여\*

김금미†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 및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변인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인집단 정체성과 고정관념 및 편견에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의 변인들, 즉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추가하여 상대적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행동에 대한 태도, 행동의도 및 행동에 미치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상대적 우세성을 알아보고, 주관적 규범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먼저 전체 모형을 통하여 수용적 행동의도의 67.1%, 행동의 66.5%가 예측되었다. 또한 태도와 행동의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편견, 즉 정서의 영향이,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고정관념, 즉 인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했고, 행동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추가한 주관적 규범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도 유의한 증분을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높이는데 있어서, 한국인집단 정체성, 고정관념 및 편견에 더하여 인간의 합리성에 기초한 계획된 행동이론의 변인들을 이용한 개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탈북자, 다문화 수용성, 고정관념, 편견, 계획된 행동이론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동안 언어, 혈통, 거주지, 문화의 단일성에 기초하여 단일민족, 전통문화의 자긍심을 애국심의 기초로 삼아왔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7년 8월 기준으로 국내에 백만 명을 웃도는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전체 인구 대비 2%에 해당한다(최훈석, 양애경, 이신주, 2008). 국내 결혼이주여성도 11만~16만으로 추정되고 있다(법무부, 2008, 양계민, 2009b 재인용). 특히 새터민(탈북자<sup>1)</sup>)은 1만 명을 넘어서(법무부, 2008, 양계민, 2009b 재인용), 2010년 10월 이후 2만 명을 상회하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KRF-2009-353-H00006]

† 교신저자: 김금미, (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E-mail: imttokki@hanmail.net  
1)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2005년부터 사용했다. 새터민은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긍정적·미래지향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통일부에서 사용하도록 건의하여 한 때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 일반화되지는 못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더 보편적으로 쓰이는 탈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를 인용한 경우에 '새터민(탈북자)'으로 표기하였다.

고 있다(통일부, 2011).

결혼이주여성, 이주 노동자, 유학생 등 민족과 국가가 다른 곳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과, 탈북자에 대한 시각은 매우 상이할 수 있다. 탈북자들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같은 나라 국민이었고, 동일한 역사를 지닌 같은 민족이며 언어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일관되게 수용적이지는 않다.

접촉 정도(양계민, 정진경, 2005),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이입 정도(전우영, 조은경, 2000), 적과 동포라는 이중적 이미지 정도(이지나, 황태호, 채정민, 2005), ‘우리’ 인식 차이(이은혜, 한성열, 2006) 등에 따라 한국인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정도는 일관되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수용의 정도와 방식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수용성을 향상시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변인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변인들에 이어 인간의 태도-행동에 대한 합리성에 기반한 계획된 행동이론 변인들의 기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소수와 다수의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서 변인 간의 관계를 심리학 이론으로 연결하여 설명하거나 검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여(한덕웅, 최훈석, 2007), 이론에 기초한 체계적인 접근이 시급히 필요하므로 의미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보편주의 가치척도를 사용하거나(송미영, 2010), 호감도,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등(김혜숙, 2007)으로 측정하거나, 혹은 인지, 정서, 행동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양계민, 2009a, 2009b)하였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간의 애매한 구분에 기초한다. 그런데, 31개의 관련 연구를 개관한 Wicker(1969, 한규석, 2010 재인용)는 ‘태도와 행동의 상관은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결론을 지은 바 있다. 그러므로 태도가 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 매개되는 변수들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측정에서 태도와 행동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개념을 포함하는 이론을 적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탈북자 수용성 향상에 중요한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에 추가하여

태도로부터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모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 Ajzen & Fishbein, 1980; Fishbein & Ajzen, 1975)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을 근거로 하는 매우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행동의도가 있어야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한덕웅 등, 2005). 따라서 태도는 행동의도를 통하여 행동에 이르게 되고, 행동의도에는 중요한 타인들의 태도와 타인들의 뜻에 따르려는 동기로 이루어지는 주관적 규범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자신이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수준을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통제도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Ajzen(1991)에 따르면 자신이 어떤 행동에 대해 통제력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 정확할 때 행동통제가 실제 행동수행을 예언하게 된다. 따라서 태도가 강하거나 규범적 영향이 강한 상황이면,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를 덜 예견하리라고 예측한다(Armitage & Conner, 2001). 이를 주관적 규범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탈북자에 대하여 수용적 행동을 하는데 대한 주변의 압력이 크면 그러한 압력이 약할 때에 비해 수용적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모형은 수유행동(Beale & Manstead, 1991)으로부터 운전행동(한덕웅, 이민규, 2001; Forwad, 2009, Norman, Armitage, & Quibley, 2007; Simsekoglu, & Lajunen, 2008) 및 운동행동(예: Hoyt, Rhodes, Hausenblas, & Giacobbi, 2009)까지 인간의 다양한 행동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예견력이 검증된 바 있고, Armitage와 Conner(2001)는 1997년까지 이 모형을 적용한 185개의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에서, 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에 대하여 .52의 중다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 모형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 1과 같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에서는 행동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선행변인으로 한다. 또한 행동은 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를 통해 예측된다. 진술한 바와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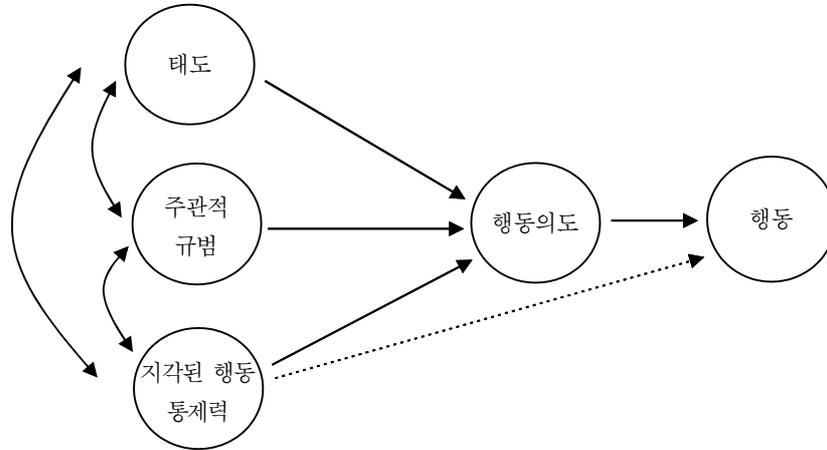


그림 1.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Ajzen, 1991, 그림 1, 182쪽)

이 때 자신의 행동통제력에 대한 지각이 정확하면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한편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대상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다. Wilson과 그의 동료들(Wilson & Dunn, 1986; Eagly & Chaiken, 1993에서 재인용)은, 왜 대상에 대한 태도가 표현되기 직전에, 태도와 별도로, 행동에 대한 태도를 지니는지에 대하여 이유 분석(analyzing reasons; 그들은 이러한 과정을 ‘cognitivazaion’이라고 칭함.) 방식에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의 대상에 대한 행동에 관련된 인지는 평상시에 접근하는 태도 관련 인지와는 다소 다른 인지로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평상시 탈북자에 대하여 다소 수용적 태도를 지니고 있던 사람이라도 탈북자 정착기금 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내는 행동에 대한 태도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행동에 대한 태도와 대상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선행하는 연구들에서 종속측정치로 쓰였던 변인들을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즉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예: 통일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김혜숙, 2002), 통일에 대한 거리감(예: 통일로 인한 실업을 감수하겠다, 전우영, 조은경, 2000), 사회적 거리감(예: 결혼이라도 하겠다, 김혜숙, 2002), 차별대상 자체에 대한 태도(예: 흑인들은 종종 상황 향상보다 체계를 비난한다, Fiske, 2004), 감정

온도(김혜숙 등, 2003), BIAS map(Behaviors from Intergroup Affect and Stereotypes map)의 행동 경향 등(예: 도움, 싸움, Fiske, 2004)을 참고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를 구분하고 이를 행동의도와 행동을 예측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표적 대상에 대한 태도에서 행동을 예견하는 전통적인 접근을 취해왔다(예: Fazio, 1989 등; Eagly & Chaiken, 1993에서 재인용). 그러나 상황적 제한과 같은 많은 비태도적 변인들이 대상에 대한 태도에서 행동을 예견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행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각 결과의 가능성에 따른 ‘행동에 대한 태도’와 그 대상 자체에 대한 ‘대상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고, 실제로 대상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태도가 행동의도 혹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때 대상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인지적인 요소로서 고정관념과 정서적인 요소로서 편견을 구분하고자 한다. 고정관념은 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인지적 기대와 연합이고, 편견은 전체로서 집단에 대한 느낌에 기초해서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Fiske, 2004). 지금까지 고정관념에 관련한 여러 연구들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김혜숙, 1999 등; Cuddy, Fiske, & Glick, 2007; Eagly, Mladinic, & Otto, 1994). 선행결과 관련하여 연구한 결과(김혜숙, 2001)에서, 대상인물의 행동에 대한

공격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념은 유의하지 않았고, 호감도가 부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가 Eagly 등(1994)의 결과와 다른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한 개인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있었고, Eagly 등(1994)의 연구에서는 각 집단에 대해 자아낸 신념과 감정을 측정하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기 때문에, 판단의 대상에 '집단'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성편견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Eagly 등(1994)의 연구는 과제 관련 행동에 대해 연구하였으므로 성 집단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호감도보다 더 영향을 미쳤고, 김혜숙(2001)의 연구에서는 공격적 행동 등 성격적 특성에 대한 성편견적 판단을 알아보았으므로 성범주에 대한 호감도에 의해 더욱 영향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종속 측정치를 무엇으로 삼는지에 따라 호감도와 신념의 상대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상에 대한 친숙도의 차이, 즉 친숙한 집단(즉 성집단과 같은)에 대한 판단은 호감도나 감정에 의해, 직접 경험이 많지 않고 덜 친숙한 집단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들은 고정관념만이 판단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친숙도의 면에 있어서 오히려 지역 집단보다도 덜 친숙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김혜숙, 2000, 2002)에서 호감이 대상에 대한 호의성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도 있다.

최근에 Cuddy 등(2007)에 의해 제안된 BIAS map에서는 집단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평가로 인해 정적 부정적인 반응을 포함하는 여러 편파들이 나타난다고 보고, 고정관념의 내용(즉, 인지), 감정(즉, 정서)<sup>2)</sup>, 그리고 차별 경향(즉, 행동)이 체계적, 기능적이고, 예측 가능하

며, 이 때 고정관념보다 정서가 행동 경향성에 대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측하였다. BIAS map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SCM(Stereotype Content Model; Fiske, Cuddy, Glick, & Xu, 2002)에 근거하여 김혜숙 등(2003)이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자료를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 군집 분석하여 6개의 군집을 얻었는데 탈북자와 이혼녀가 따뜻함과 유능성이 모두 낮은 집단에 속하였다. 그러나 군집의 위치로 볼 때 따뜻함이 아주 낮기보다는 중간 정도여서, 원래 Fiske 등(2002)의 연구에 따라 김혜숙 등(2003)이 기대한 바와는 달리, 이들에 대해 혐오나 경멸의 감정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다른 감정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더하여 Cuddy 등(2007)의 BIAS map에서는 고정관념과 정서에서 행동을 예측하는 틀을 완성하였다. 연구 결과, 각 정서는 각 행동 경향성들과 강한 관련이 있었고, 고정관념에서 행동 경향성으로 향하는 연결을 정서가 완전 혹은 부분 매개함으로써 정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와 일관되게 북한 사람에 관련하여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를 연구하면서 태도에 있어서 정서의 중요성은 거듭 밝혀진 바 있다(김혜숙, 2000, 2002; 김혜숙 등, 2003). 이러한 해석과 관련하여 연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관련 연구들의 종속 측정치는 주로 북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들로서 행동의도에 가깝고, 대상의 공격적 행동이나 주장적 행동에 대한 평가는 대상에 대한 태도(예: 대상 인물이 얼마나 공격적인가, 좋아할만한가, 지적인가 등)와 행동에 대한 태도(예: 미래에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등)가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 가운데 어떤 종속 측정치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상대적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겠다.

태도와 행동의도, 및 행동을 구분하여 보면, 태도 및 행동의도에는 정서가 인지보다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는 인지, 즉 고정관념의 영향이 정서, 즉 편견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태도가 실제로 표현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지적인 과정이 덧붙여지는 과정을

2) SCM이나 BIAS map에서는 <고정관념> 혹은 <정서>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이는 태도의 3요소, 즉 인지, 정서, 행동 각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고정관념, 편견, 차별이라 부르는 용어를 참조할 때 적절한 대구를 이루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기술할 때 이를 고려하고 '편견'과 '차별'이 대상에 대한 부정적 반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여 SCM이나 BIAS map과 일관되게 좀 더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정서', '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연구를 할 때는 그 부정적 의미를 살려 '편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주 3)을 달았다.

가정한 것이다. Devine(1989)에 따르면 편견이 낮은 사람도 편견이 높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사고가 활성화되지만 활성화 이후에 인지적으로 활성화된 내용과 반대되는 방향의 처리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일관되게 본 연구에서도 행동을 할 때는 정서보다는 고정관념의 영향이 더 크리라고 예측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행동 의도 및 행동은 탈북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수용성 정도와 관련되므로, 집단간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사회정체성이 중요할 것이다. 사회정체성이란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집단의 일원이라는 지식과 그러한 멤버십에 부여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로부터 생기는 개인의 자기 개념의 일부'로 정의된다(Tajfel, 1982).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고정관념과 편견도 결국 집단 범주화에 기초한다고 설명될 수 있다(Hogg & Abrams, 1988).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 Tajfel과 Turner(1979; 한덕용, 1995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 정체성에 기여하는 소속 집단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사회정체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 즉, 내집단이 외집단과 비교한 결과가 긍정적이면 자존심이 높아지고, 부정적이면 자존심이 낮아진다. 최소집단연구에 따르면 단지 집단만 구분하여도 내집단 편애와 외집단 격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정체성도 외집단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변인이 될 것이다.

또한 계획된 행동이론을 이용하여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규범의 영향을 재차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규범은 중요한 타인들의 태도와 타인들의 뜻에 따르려는 동기의 곱으로 표현되며, 객관성을 지닌 규범에 대한 주관적 지각 정도라고 볼 수 있다. Armitage와 Conner(2001)의 계획된 행동 이론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주관적 규범과 의도의 상관은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와 의도의 상관에 비해 더 낮았지만,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 사회에서는 행동에 대한 태도보다 타인들의 영향을 시사하는 주관적 규범이 행동을 설명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덕용 등, 2005). 김금미(2010)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도 위계적

회귀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 주관적 규범을 추가한 결과, 다문화 수용적 행동 전체 변량의 68.2%를 설명하였다. 또한 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이 유의하며, 그 중요도는 지각된 행동통제보다 컸다. 따라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동족인 탈북자에 대한 행동의도 뿐만 아니라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주관적 규범의 영향을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변인을 알아낼 목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 및 행동의 틀에 기초하여, 고정관념과 편견 및 사회정체성을 추가한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고정관념과 편견은 계획된 행동이론의 틀에서 볼 때 행동에 대한 태도가 아닌 대상에 대한 태도인데, 이는 행동 상황의 부합성과 현저성에 따라 해당 상황에서 영향력이 달라지므로(Eagly & Chaiken, 1993) 모형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고정관념과 편견에 관한 연구는 이미 확고한 연구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SCM이나 BIAS map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행동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동에 대한 태도만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탈북자에 대한 행동의도 및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에 이를 추가하고자 한다.

유사한 틀을 적용하여 남성의 성평등 의식을 설명한 연구(김금미, 안상수, 2008)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성평등 의식(태도)과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 도덕적 책무감을 추가하여 성평등 행동의도의 44.8%가 설명되었다. 또한 이러한 모형을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예측하는데 적용한 결과(김금미, 2010)에서도,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해서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의 47.4%가 설명되었고, 다문화 수용적 행동은 61.1%가 설명되었다. 이어서 한국인 집단 정체성을 추가하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더하여 다문화 수용적 행동의도의 51.8%, 행동의 65.9%가 설명되었다. 전체 모형에서 한국인 집단 정체성의 영향은 대체로 약했고,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고정관념은 행동의도 다음으로 중요했다.

이러한 모형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초로 다른 개념들의 추가 가능성을 알아보는

과정에 충실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이론의 틀을 기초로 하여 다른 변인들을 추가하여 증가되는 설명량을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수용성 향상을 위한 개입 가능성에 초점을 두 고자 한다. 즉 집단간 관계에 기초한 사회정체성과 대상에 대한 태도로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지니고 있는 개인에게 후속적으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를 통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가정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인간의 합리성에 기초한 계획된 행동이론 틀의 접근이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 하에 의식적인 행동의도에 따라 행위를 취하며, 이 행동 의도는 행동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이 그 행위를 어떻게 여길 것인지를 검토하여 결정된다고 보는(한규석, 2010) 이론의 틀에 입각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순서를 취함으로써, 첫째, 인간에게 좀 더 내재적으로 보이는 고정관념과 편견, 즉 대상에 대한 태도와 그 바탕이 되는 집단간 관계에 기초한 정체성을 통계적으로도 먼저 위치시킬 수 있고, 둘째, 이러한 틀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의 변인들의 추가적인 영향력이 밝혀진다면 수용적 행동의도나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적 혹은 교육적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 각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정체성, 고정관념과 편견에 이어 다양한 개입을 통해 변화시킬 대상으로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상에 대한 태도, 행동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고 대상에 대한 태도 가운데에도 사회정체성과 고정관념 및 편견의 행동의도 혹은 행동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즉 북한 사람에 대하여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를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정서의 중요성(김혜숙, 2000, 2002; 김혜숙 등, 2003)이 태도, 행동의도, 행동에 대해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수용적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 지점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연구 문제

전술한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문제를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를 설명하는데 사회정체성, 고정관념과 편견 및 계획된 행동이론의 변인들 즉,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사회정체성, 고정관념과 편견 및 계획된 행동이론의 변인들 가운데 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셋째, 이에 덧붙여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규범의 추가적 설명량은 어느 정도인가. 추가적으로, 행동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고정관념 및 편견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은 심리 경제적인 여유나, 인터넷 사용, 외국 방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계층(송미영, 2010)’을 형성하고 있고, 이들이 바로 미래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선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수용성 정도가 의미하는 바가 나름의 중요성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 방 법

### 연구 참가자

조사는 서울과 지방의 4개 대학에 총 712부의 설문지를 임의표집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4부를 제외하고 참가자는 남자 362명(51.1%)과 여자 346명(48.9%)(서울 317명(44.8%)과 지방 391명(55.2%))에게 심리학 관련 강좌를 수강할 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응답자들의 평균 나이는 21.8세였고, 탈북자에 대하여 얼마나 아는지(전혀 모른다)~6(매우 잘 안다)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는 0점 50명(7.0%), 1점 246명(34.6%), 2점 177명(24.9%), 3점 141명(19.8%), 4점 83명(11.7%), 5점 11명(1.5%)이었고, 평균은 1.99점으로 ‘약간 모른다’ 정도에 해당한

다. 또한 실제 접촉 경험이 없는 경우가 97.6%로 본 연구는 거의 접촉이 없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측정도구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예언하기 위하여 수용적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에 관련된 의도와 행동, 그리고 탈북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및 '한국인'에 관련한 사회정체성을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0. 전혀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형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 수용적 행동

김금미(2010)와 Cuddy 등(2007)의 문항을 바탕으로 탈북자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실제로 수용적 행동을 한 경험이나 하는 경향성을 측정하였다. '친구들에게 탈북자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등의 19문항이었다. 평균 3.56( $SD=0.71$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 경향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보통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행동 경향을 알 수 있다. 19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0이었다.

### 수용적 행동의도

행동의도 문항은 수용적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을 측정하려는 것으로서, 태도가 (행동에 대한) 가치나 신념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행동의도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실천 의사나 행동 추구 경향을 묻는다는 점에서 다르다(Ajzen, 1991). 선행연구들(유연재, 김혜숙, 2000, 맹진학, 2009 등)에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사회적 거리 척도는 '결혼이라도 하겠다, 데이트 상대로 삼지 않겠다(R)' 등의 문항으로 대체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행동의도를 측정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행동의도로 삼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나는 탈북자를 개인적인 가까운 친구모임의 멤버로 삼겠다' 등의 6문항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을 실천하려는 의도가 강함을 의미하므로, 평균 3.48( $SD=0.84$ )점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행동의도를 지님을 뜻한다. 6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0이었다.

###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탈북자들의 공통적 특성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였다. 탈북자 및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김금미, 2010, 김혜숙, 2002; 전우영, 1999)에서 사용한 형용사와 Cuddy 등(2007)의 고정관념 형용사들을 참조하여, '권위주의적이다', '정이 많다' 등의 46개의 형용사를 선정하여 선행연구를 실시한 결과를 참조하여 37개의 형용사를 본 조사에 실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의 구조를 알아보았다. 모형은 공통요인 모형이었고, 기초 구조의 추출 방법은 주축분해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공통분의 시초값은 중다상관관계치로 추정하였다. 요인의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하여 직교회전 방법을 이용하여 회전하였다. 기초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스크리 검사, 고유치, 누적분산 비율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두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 변량의 47.22%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부정적 고정관념' 요인은 '침략적이다', '거만하다' '위협적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이 2.09( $SD=1.06$ )로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10.01, 신뢰도 계수는 .94였다. 두 번째 요인은, '이해심 있다', '따뜻하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긍정적 고정관념' 요인이었다. 이 요인의 평균은 역산하여 6점 만점의 7점 척도 가운데 3.08( $SD=.86$ )로 중간 정도의 긍정적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7.46, 신뢰도 계수는 .92였다.

조사 대상 대학생의 고정관념의 전체 평균은 6점 만점의 7점 척도에서 2.49( $SD=0.79$ )로 척도의 중간 값인 3점(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90이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전체를 평균하여 고정관념의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탈북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 편견

편견은 대학생들의 탈북자에 대한 정서와 평가적 태도를 말한다. 유연재와 김혜숙(2000)의 북한에 대한 문항, Cuddy 등(2007)의 정서 측정 형용사,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 문항(김금미, 2010)을 참조하여, 13개의 형용사를 본 조사에서 실시하였고,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김혜숙, 2002; 김혜숙 등, 2003)의 결과와 일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고정관념 분석에 사용한 방법과 일관된다.

전체적으로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혐오적 정서성’ 요인은 ‘혐오스럽다’, ‘불쾌하다’ 등의 혐오적인 정서로 구성되어 있고 0~6점의 7점 척도에서 평균이 1.61( $SD=1.16$ )로 탈북자에 대한 혐오적 정서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5.08, 신뢰도 계수는 .91이었다. 또한 ‘불쌍하다’, ‘동정한다’ 등으로 구성된 ‘연민 정서성’ 요인의 평균은 4.22( $SD=.89$ )로 탈북자에게 어느 정도 높은 연민 정서를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2.10, 신뢰도 계수는 .76이었다. 마지막으로, ‘존경·긍정적 정서성’ 요인은 ‘자랑스럽다’, ‘존경할만하다’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역산한 평균은 2.74( $SD=1.16$ )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존경·긍정적 정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1.97, 신뢰도 계수는 .76이었다. 조사 대상 대학생의 전체 평균은 2.74( $SD=0.54$ )로 척도의 중간값인 3점(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5였으며,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편견은 고정관념과 마찬가지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 한국인 집단 정체성

이 척도는 한국인이라는 하나의 집단이 다른 문화 집단과 구별되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3) 고정관념과 편견 측정치는 긍정적 문항을 역산하여 부정적 방향이 되도록 하였다. 고정관념의 내용에는 긍정/부정 방향의 요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편견의 내용이 부정적이고 고정관념의 경우도 주목되는 내용은 주로 부정적인 것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다.

데,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금미와 한덕웅(2001), 금명자, 권해수, 및 이희우(2004), 양계민(2009a, 2009b)의 문항을 참조하여 총 43개 문항에 대하여 2009년 말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15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고정관념 분석에 사용한 방법을 따랐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한국인집단지존심’ 요인은 내집단에 대한 긍지, 내집단에 대한 의미부여, 중요성 지각과 관련된 내용이며, 평균은 3.53( $SD=.98$ ), 고유치는 4.56,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 ‘한국인집단몰입’ 요인의 평균은 4.94( $SD=1.15$ )로 전체적인 방향과 일관되도록 문항의 방향을 역전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데 대하여 부끄럽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등 부정적인 정서를 낮게 지님을 알 수 있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2.93,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한국인집단범주화’ 요인은 계속 함께 활동하고 싶은 정도, 쉽게 믿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애착 등 집단에 대한 동일시(identification) 정도를 나타내고 평균은 3.45( $SD=.96$ )로 중간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2.00, 신뢰도 계수는 .79였다. 조사 대상 대학생의 탈북자 집단에 대한 한국인 집단 정체성의 전체 평균은 3.65( $SD=0.70$ )로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83이었고 전체 변량의 63.22%를 설명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를 평균하여 한국인 집단 정체성 측정치로 사용하였고,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인 집단 정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수용적 태도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혜숙 등(김혜숙, 오승섭, 1999; 김혜숙, 2002; 유연재, 김혜숙, 2000)의 탈북자 및 대북 정책에 관련한 태도를 참고하여 행동에 대한 태도가 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 등의 총 8 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평균은 3.89( $SD=0.90$ ), 신뢰도 계수는 .92였다.

##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중요한 타인의 규범적 압력에 동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김금미와 안상수(2008), 김금미

(2010)가 사용한 척도를 탈북자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내가 탈북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주변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등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규범 점수가 높을수록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을 실행하기에는 규범적 압력을 많이 받아 그러한 방향의 행동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평균은 2.45( $SD=1.37$ ), 신뢰도 계수는 .84였다.

### 지각된 행동통제

지각된 행동통제는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을 수행하기가 쉽거나 어렵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김금미와 안상수(2008), 김금미(2010)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비교적 탈북자를 한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등의 2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상관계수는 .86이었다. 평균은 3.64( $SD=1.05$ )로 높은 점수일수록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을 실행하는데 통제력이 높아 행동이 용이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은 PASW Statistics 18.0으로 처리하였다.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각각 준거변인으로 삼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요한 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사용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성별에 따른 수용적 행동 관련 변인의 차이

먼저 조사 대상의 전체적인 개관을 위하여, 성별에 따른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 관련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적 행동과 행동의도에서 여자 대학생의 점수가 높았으나, 남성의 주관적 규범이 높아서 남성들이 여성들보

다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인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주변의 부정적 압력을 더 받음을 알 수 있다. 행동통제도 남자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 밖에 태도, 한국인 집단 정체성, 고정관념 및 편견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 성별에 따른 수용적 행동 관련 변인의 차이

구 분	남 <i>M(SD)</i>	여 <i>M(SD)</i>	<i>t</i>
행동	3.46( .70)	3.67( .70)	-3.78***
행동의도	3.45( .98)	3.73( .97)	-3.80***
고정관념	2.49( .77)	2.49( .80)	-.04
편견	2.75( .55)	2.73( .53)	.44
한국인 정체성	3.62( .73)	3.68( .68)	-1.13
태도	3.86( .85)	3.90( .95)	-.59
주관적 규범	2.78(1.35)	2.11(1.30)	6.62***
행동통제	3.70(1.03)	3.56(1.06)	1.74*

주. \*  $p<.10$ , \*  $p<.05$ , \*\*  $p<.01$ , \*\*\*  $p<.001$

### 지역에 따른 수용적 행동 관련 변인의 차이

조사 대상의 지역에 따른 수용적 행동 관련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과 지방을 나누어 차이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지역에 따른 차이에서,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과 행동의도, 편견 및 한국인 집단 정체성에서 서울보다 지방 대학생들이 점수가 더 높았다. 그러나 지방보다 서울 소재 대학생의 주관적 규범이 높아서 서울의 대학생들이 지방의

표 2. 지역에 따른 수용적 행동 관련 변인의 차이

구 분	서울 <i>M(SD)</i>	지방 <i>M(SD)</i>	<i>t</i>
행동	3.32( .56)	3.76( .76)	-8.76***
행동의도	3.21( .89)	3.90( .96)	-9.79***
고정관념	2.37( .66)	2.52( .82)	-1.73*
편견	2.64( .47)	2.77( .56)	-2.18*
한국인 정체성	3.37( .52)	3.89( .75)	-10.61***
태도	3.87( .70)	3.89(1.04)	-.31
주관적 규범	3.18(1.33)	1.85(1.07)	14.46***
행동통제	3.68( .90)	3.60(1.16)	1.06

주. \*  $p<.10$ , \*  $p<.05$ , \*\*  $p<.01$ , \*\*\*  $p<.001$

표 3. 구성개념 측정치들간의 상관행렬

구 분	1	2	3	4	5	6	7	8
1. 행동	1	.79***	-.60***	-.57***	.15***	.54***	-.56***	.49***
2. 행동의도		1	-.55***	-.60***	.15***	.57***	-.63***	.49***
3. 고정관념			1	.65***	.10*	-.50***	.29***	-.42***
4. 편견				1	.11*	-.52***	.22***	-.50***
5. 한국인 정체성					1	-.10**	-.37***	-.10***
6. 태도						1	-.16***	.57***
7. 주관적 규범							1	-.11**
8. 행동통제								1

주.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대학생들보다 수용적인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주변의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다.

#### 구성개념의 상호상관

다음으로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상관 계수들이 유의했고,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과 행동의도의 상관은 .79로 매우 높았다. 전체적으로 한국인 집단 정체성과 다른 변인들간의 상관이 비교적 낮고 주관적 규범은 한국인 집단 정체성, 행동의도, 행동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상관이 낮았으며 나머지는 .50 내외의 중간 이상의 상관을 보였다.

####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모형을 비교 검증하기 전에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52~.99, 분산팽창요인은 1.01~1.93으로 10 이하여서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운데 한국인 집단 정체성 및 고정관념과 편견, 즉 대상에 대한 태도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먼저 추가하고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하여 이성적, 합리적인 개입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론 관련 변인을 마지막으로

추가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먼저 한국인 집단 정체성에 이어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투입하였을 때, 편견( $\beta = -.35$ ,  $p < .01$ )이 고정관념( $\beta = -.23$ ,  $p < .01$ )보다 행동의도를 더 많이 설명했다. 이 두 요소를 추가했을 때  $R^2$ 은 27.3%가 증가하였다. 이어서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가정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를 추가했을 때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를 더 설명하는 변량은 37.4%였고 증분이 유의했으며, 세 예측변인 가운데 주관적 규범( $\beta = -.52$ ,  $p < .01$ )의 영향이 가장 컸고, 이어서 태도( $\beta = .29$ ,  $p < .01$ )와 지각된 행동통제( $\beta = .18$ ,  $p < .01$ )의 순서였다.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변량의 67.1%를 설명하는 결과를 얻었다.

표 4.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선행 요인들을 비교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구 분	B	$\beta$	t
한국인 정체성	.21	.15	4.08***
고정관념	-.34	-.23	-5.55***
편견	-.76	-.35	-8.45***
$R^2$ 변화량=.27***, $F=99.36$ ***			
태도	.32	.29	10.24***
주관적 규범	-.38	-.52	-21.62***
행동통제	.17	.18	6.70***
$R^2$ 변화량=.37***, $F=239.39$ ***			
$R^2(Adj R^2)$		$R^2=.67(Adj R^2=.67)$	

주.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용적 행동의도에 적용했던 방식을 따라서 분석하였다(표 5 참조). 먼저 모형을 비교 검증하기 전에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38~.83이었고 분산팽창요인(VIF)은 1.21~2.64로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집단간 관계에 대한 한국인 집단 정체성 변인이 수용적 행동을 설명하는지 알아본 결과는 유의했고, 이어서 고정관념과 편견의 추가적 설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정관념과 편견을 동시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고정관념( $\beta = -.34, p < .001$ )이 편견( $\beta = -.28, p < .001$ )보다 더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 두 요소를 추가했을 때  $R^2$ 은 31.3%( $p < .001$ )가 증가되었다. 이어서 수용적 행동에 대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주장하는 두 변인, 즉 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증가하는 설명량은 31.5%( $p < .001$ )였고, 행동의도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었다( $\beta = .62, p < .001$ ). 이에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관적 규범이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관적 규범을 마지막 단계로 투입한 결과에서 유의한 증분이

표 5.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을 예측하는 선행요인들을 비교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구분	B	$\beta$	t
한국인 정체성	.15	.15	4.00***
고정관념	-.36	-.34	-8.47***
편견	-.43	-.28	-6.98***
$R^2$ 변화량=.31***, $F=118.70$ ***			
행동의도	.44	.62	21.80***
행동통제	.08	.11	4.22***
$R^2$ 변화량=.32***, $F=261.80$ ***			
주관적 규범	-.09	-.18	-5.75***
$R^2$ 변화량=.02***, $F=233.60$ ***			
$R^2(Adj R^2)$		$R^2=.67 (Adj R^2=.66)$	

주.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있었으며( $\beta = -.18, p < .001$ ), 전체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 66.5%를 설명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대학생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비교 검증하기 전에 변인들간의 공선성을 확인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는 .59~.99, 분산팽창요인(VIF)은 1.01~1.71로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음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 집단 정체성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정 하에 먼저 한국인 집단 정체성을 투입하고 이어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추가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에 해당하는 변인들, 특히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각각 행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표 6 참조), 그 결과로 한국인 집단 정체성과 고정관념 및 편견이 행동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전체 변량은 27.5%였고, 고정관념과 편견 가운데 편견( $\beta = -.32, p < .001$ )이 더 중요한 변인이었다.

표 6. 탈북자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선행요인들을 비교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구분	B	$\beta$	t
한국인 정체성	-.13	-.10	-2.69**
고정관념	-.35	-.25	-6.08***
편견	-.63	-.32	-7.64***
$R^2$ 변화량=.27***, $F=90.67$ ***			
$R^2(Adj R^2)$		$R^2=.28 (Adj R^2=.28)$	

주.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인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인 집단 정체성, 고정관념과 편견의 상대적인 영향과, 계획된 행동이론 모델의 변인, 즉, 수용적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가 비슷한 모형을 사용한 다른 연구들(김금미, 안상수, 2008; 김금미 2010)과 차이는 점은 모형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계획된 행동이론의 개념들이 한국인 집단 정체성이나 고정관념 및 편견에 후속적으로 투입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정체성과 고정관념 및 편견에 이어, 태도와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의 개념이 추가적으로도 유의하였기 때문에 이에 기초하여 이후 인지적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개입 여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상에 대한 태도, 행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 및 행동을 구분하고, 한국인 집단 정체성과 대상에 대한 태도로 상정한 고정관념 및 편견이 행동에 대한 태도, 행동의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중요성을 검토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영향력이 유의하지만 행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는 편견의 영향이, 행동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beta$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 사람에 관련한 선행연구들(김혜숙, 2000, 2002; 김혜숙 등, 2003)에서 밝혀진 태도에 있어서 정서의 중요성과 일관되면서 한편 행동의도보다 더 나아간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는 좀 더 인지적인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 면이 있다.<sup>4)</sup>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

4)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 이론적 단계를 설정하지 않고 모든 변인들을 동시에 회귀방정식에 투입한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시회귀분석 결과에서,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에 대하여 행동의도( $\beta=.43, p<.001$ ), 고정관념( $\beta=-.19, p<.001$ ), 지각된 행동통제( $\beta=.17, p<.001$ ) 및 주관적 규범( $\beta=-.12, p<.001$ )의 순서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고, 편견, 행동에 대한 태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한국인 집단 정체성은 유의한 경향을 보이는 데 그쳤다( $\beta=.05, p<.10$ ). 또한 행동의도에 대한 동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태도( $\beta=.39, p<.001$ ), 지각된 행동통제( $\beta=.24, p<.001$ ), 편견( $\beta=-.17, p<.001$ ), 주관적 규범( $\beta=-.17, p<.001$ )과 고정관념( $\beta=-.09, p<.05$ )의 순서로 중요했고, 한국인 집단 정체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행동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편견( $\beta=-.33, p<.001$ ), 고정관념( $\beta=-.28, p<.001$ ), 한국인 집단 정체성( $\beta=-.08, p<.05$ )의 순서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이 결과에서도 태도와 행동의도까지는 고정관념, 편견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발현되는 데에는 편

대상으로 비슷한 모형을 검증한 김금미(2010)의 연구에서 행동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모두 중요하지만, 행동을 설명할 때는 고정관념이 유의하고 정서가 유의한 추세를 보이는데 그쳤던 점과도 유사하다. 그런데 이 때 주의할 점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인 부분, 즉 고정관념이 더 개입된다는 것이 꼭 수용적인 방향의 행동을 하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고정관념의 내용에 따라서 영향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교육 등의 개입과 주변의 긍정적 영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셋째,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 틀 가운데 우리 문화에서 더 주목할 부분이 주관적 규범의 역할이다. 본 연구에서 행동 설명의 마지막 단계에 주관적 규범을 추가하여 유의미한 증분을 얻었으며 이는 한국 문화권에서, 그리고 익숙치 않은 대상에 대한 행동을 할 때 주변의 압력에 따르려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특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원래 모형에서는 가정되지 않았던, 주관적 규범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며, 이후 모형 검증을 통해 더욱 명확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요인을 검증하였다. 김혜숙(2002)의 연구에서는 고정관념이 배타·폐쇄, 협동·단결, 침략·미개, 권위·이기, 순박·정, 실리적·합리적의 6요인으로 나뉘었고, Cuddy 등(2007)의 연구에서는 따뜻함과 유능함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우영(1999)의 결과와 일관되게 긍정과 부정의 두 차원으로 나뉘었다. 또한 편견(정서)의 요인분석의 결과는 김혜숙(2002)의 불안·불쾌, 즐거움·정, 동정의 3요인과 일관되었다.

한편 연구의 결과에서 예상과 달리 한국인 집단 정체성의 영향은 크지 못했다. 이는 대상 집단이 같은 언어를 쓰는 동일한 민족인 탈북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인 집단 정체성의 경계가 불분명한 데서 연유할 수 있다. 혹은 계획된 행동이론의 설명대로 집단에 대한 정체성의 부합성이 떨어져서 그 영향이 뚜

견보다는 고정관념의 영향이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렸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편 약한 주관적 규범의 대안으로 사회정체성이론과 맥을 같이하는 다른 변인들을 추가한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행동이나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관적 규범을 대신하는 사회정체성/자기범주화 이론에서 나온 ‘집단 소속감’이나 사회적 영향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 같은 다른 변인들을 추가한 연구들이다(Hamilton & White, 2008).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에서 한국인 집단 정체성의 영향이 약한 이유가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강한 것과 관련될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간략히 정리하면서 의의와 함께 추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첫째, 고정관념과 편견, 및 사회정체성을 기초로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형 틀을 추가하여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여 65%이상의 설명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후에 이러한 모형에 기초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의 틀에 맞추어 주변의 영향과 그들의 압력,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을 하겠다는 신념 및 행동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두어 교육적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행동에 대한 태도, 행동의도, 행동에 미치는 고정관념과 편견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효과에 대한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편견이 낮은 백인들처럼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후에 부정적 사고를 억제하여서 내외집단 편향이 나타나지 않게(Devine, 1989)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개입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규범의 직접적인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 문화권의 독특한 현상일 수 있거나 혹은 익숙하지 않고 잘 학습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행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태도로 부터 행동의 발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몇몇 다른 틀에서 주장되어 오던 변인과 개념들을 하나의 틀 위에서 비교함으로써 설명력을 더하거나 보완시키려는 시도를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행동에 대한 태도, 행동의도와 행동의 구분, 그리고 대상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태도의 구분 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고정관념과 편견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

한편, 추후 연구에서는 수용적 태도와 행동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가치의 문제가 중요할 수 있다. 김혜숙(2007)은 보편주의 가치가 외국인노동자, 새터민(탈북자), 장애인, 북한 사람 및 호남사람 등의 약자 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이들을 돕는 정책에 대한 찬성 태도와 관련되고, 권력가치 및 자기지도, 성취가치는 이들 약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정책에 대한 반대 태도와 관련된다고 예측하였는데 결과는 대체로 지지되었다. 본 모형에서 판단자의 가치는 대상에 대한 태도의 근간이 될 수 있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이에 따른 추후 연구의 과제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 행동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태도로, 행동의도를 ‘의도, 의향’으로, 행동은 ‘행동 경험’으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나, 그래도 지각자의 입장에서는 구분되지 못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설문지에서 나타난 행동이 실제 행동과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 예컨대 실험 연구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사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전체 한국인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표집의 한계도 있다. 한편 접촉 경험에 따라 수용성 정도가 다를 수 있고, 대학생의 접촉 정도가 낮을 수 있으나,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접촉 경험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좀 더 정교하게 표집된 조사와 포괄적인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모형에 근거하여 탈북자에 대한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금명자, 권혜수, 이희우 (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 김금미 (2010). 대학생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259-283.
- 김금미, 안상수 (2008). 남성의 성평등 의식 예언을 위한 모형 통합: 사회정체성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33-155.
- 김금미, 한덕웅 (2001).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과 남녀간 경쟁전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15-38.
- 김혜숙 (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33.
- 김혜숙 (2000).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19-45.
- 김혜숙 (2001). 집단범주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편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성편견, 인종편견과 한국의 성편견, 지역편견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6.
- 김혜숙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35-50.
- 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 (2003).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21-143.
-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김혜숙, 오승섭 (1999). 북한사람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와의 비교. 심리과학, 8(1), 1-22.
- 맹진학 (2009). 한국인의 다문화 배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사회복지 정책, 36(3), 323-348.
- 송미영 (2010). 한국의 다문화의식: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분석,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41, 74-194.
- 양계민 (2009a).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387-421.
- 양계민 (2009b).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97-115.
- 유연재, 김혜숙 (2000). '한집단' 범주의 접화가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91-112.
- 이은혜, 한성열 (200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차에 따른 남한주민의 사회적 지지 차이.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358-359.
- 전우영 (1999). 남북한 고정관념에 대한 탐색: 성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19-232.
- 전우영, 조은경 (2000).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67-184.
- 최훈석, 양애경, 이선주 (2008).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안산과 영암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39-69.
- 통일부 (2011). 탈북자? 새터민? 정확한 명칭은 뭘까?(<http://blog.daum.net/mounification/8768607>). 2011년 4월 19일.
- 한규석 (2010).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 한덕웅 (1995). 집단 행동 이론의 비판적 개관(II): 집단간 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1), 39-84.
- 한덕웅, 성한기, 강해자, 이경성, 최훈석, 박근석, 김금미, 장은영 (2005). 사회심리학. 학지사.
- 한덕웅, 이민규 (2001).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음주운전 행동의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41-158.

- 한덕웅, 최훈석 (2007).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적응과 갈등에 관한 심리학 연구. *다문화 사회 한국사회과학의 과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1-37.
- 한민, 이지나, 황태호, 채정민 (2005).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이미지와 통일인식.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192-193.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rmitage, C. J., & Conner, M. (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471-499.
- Beale, D. A., & Manstead, A. S. R. (1991). Predicting mothers' intentions to limit frequency of infants' sugar intake: Tes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1, 409-431.
- Cuddy, A. J., Fiske, S. T., & Glick, P. (2007). The BIAS Map: Behaviors from intergroup affect and stereotyp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4), 631-648.
- Devine, P.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Orlando: Harcourt Brace Jovanovich.
- Eagly, A. H., Mladinic, A., & Otto, S. (1994). Cognitive and affective bases of attitudes toward social groups and social polici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113-137.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New York: Wiley.
- Fiske, S. T. (2004). *Social Beings: A Core Motives Approach to Social Psychology*. New York: Wiley.
- Fiske, S. T., Cuddy, A. J., Glick, P. S.,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78-902.
- Forwad, A. (2009).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The role of descriptive norms and past behaviour in the prediction of drivers' intentions to violate.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12, 198-207.
- Hamilton, G., & White, K. M. (2008).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role of self and social influences in predicting adolescent regular moderate-to-vigorous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30, 56-74.
- Hogg, M. A., & Abrams, D. (1988). *Social Identifications: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Hoyt, A. L., Rhodes, R. E., Hausenblas, H. A., & Giacobbi, Jr, P. R. (2009). Integrating five-factor model facet-level traits wit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exercis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0, 565-572.
- Norman, P., Armitage, C. J., & Quibley, C. (2007).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binge drinking: Assessing the impact of binge drinker prototypes. *Addictive Behaviors*, 32, 1753-1768.
- Simsekoqlu, O., & Lajunen, T. (2008). Social psychology of seat belt use: A comparison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health belief model.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11, 181-191.
- Tajfel, H. (1982).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he Factors Influencing Receptive Behavior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Keum-mi, Kim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conform the effect of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in explaining receptive behavior intention as well as receptive behavior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investigate the comparative role of Korean social identity, stereotype and prejudice(i.e. attitude about object) in the prediction of receptive behavior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study the influence of subjective norm on receptive behavior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A sample of 708 undergraduate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ults from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the receptive intention was explained 67.1% by proposed model, while receptive behavior was explained 61.1% by this model. Furthermore, the influence of the prejudice on attitude/receptive intention was strong than the stereotype, and the influence of the stereotype on receptive behavior was strong than the prejudice. Finally the path of the subjective norm on behavior was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s well as the future directions of this area were discussed.

*Keywords: the North Korean defectors, stereotype, prejudice, theory of planned behavior, receptive behavior*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03월 14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1년 06월 13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07월 18일